

교육감 정책 과제 확정... 예산 확보 ‘발등의 불’

인수위, 어제 고의숙 교육감에 47개 정책 과제 전달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IB 고교 확대’ 등 포함
“도교육청 가용 예산 최약”... 시설사업비 조정될 듯

오늘(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실현할 정책 과제가 공개됐다. 앞으로 4년간 제주교육의 변화를 이끌 공약이 확정된 셈인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를 실현하려면 가용 예산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 이하 준비위)는 지난달 30일 준비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 47개의 정책 과제를 확정해 이날 고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9일 출범한 준비위가 20여 일간 당선인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다. 준비위가 전달한 정책 과제는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이라는 교육 지표 아래 5대 교육 시책으로 정리됐다.

시책별로 보면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에는 ▷초개별화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 구축 ▷제주AIM미래교육원 구축 등 10개 정책 과제가 담겼다. 고 당선인이 기존 ‘1인 1노트북 지원(드림노트북) 사업’을 폐지하고 이 예산을 활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도 포함됐다.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은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조담당관’ 신설 ▷특수학급 과밀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 ▷등하굣길 ‘안심택시’ 운영 등 10개 정책 과제로,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은 ▷제주4·3 교육과 신설 등 9개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교육’과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에도 각각 9개 정책 과제가 반영됐다. 대

표적으로 ▷온마을 돌봄·교육 ‘꿈꾸는 오후’ 추진 ▷제주형 IB 교육 내실화 및 IB고등학교 확대 ▷청렴도 최상위권으로 회복 등이다.

준비위는 지난 6·3 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광수 전 교육감과 송문석 후보의 공약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교육감의 ‘농어촌 유학 함께온(ON) 제주2.0 확대’와 송문석 후보의 ‘1인 1 문화·예술·체육 교육’이다. 도민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도 반영 여부가 검토된다. 그동안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운영된 ‘온라인도민소통플랫폼’에는 지난달 30일 오전 기준 180건의 제안이 올라왔는데, 이를 분석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임 교육감의 임기 내 정책 과제가 제시됐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건은 ‘예산 확보’다. 현재 도교육청의 가용 예산 상황을 검토한 준비위는 “사실상 최약”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2027년부터 2030년 이후까

지 예정된 교육청의 시설사업비가 514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예산 조정이 선결 과제로 제시됐다. 준비위는 대해 예산 투입이 요구되는 계속비 시설 사업(31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990억원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청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

한마디로 현재 사업 착수나 사전 기획, 설계 단계에 있는 시설 사업비의 쓰임을 조정해 교육감 공약 제원에 우선 투입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도교육청의 시설사업비 손질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강봉수 준비위원장은 “적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매년 가용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공약을 추진할 것을 당선인에게 주문했다”며 “어려운 여건에서 임기를 시작하지만 당선인에게 주어진 ‘아이중심·현장 중심’의 철학과 비전은 반드시 현실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소방서장에 고정훈 소방정 임명

소방령·소방정 11명 인사

제주소방서장에 고정훈 소방정이 임명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7월 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1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인사 대상은 소방정 5명, 소방령 6명이다.

제주소방서장에는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장인 고정훈 소방정이, 소방안전본부 119특수대응단장에는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인 고정훈 소방정이 각각 전보 발령된다.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장에는 소방안전본부 소방정보통신팀장인 김근영 소방령이 소방정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긴다.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장에는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장인 양



고정훈 제주소방서장

윤석 소방정이 전보 발령되고,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장에는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팀장인 고태민 소방령이 소방정으로 승진해 배

치된다.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팀장에는 강경훈 소방령, 소방안전본부 소방정보통신팀장에는 고종갑 소방령, 서부소방서 예방구조과장에는 양대훈 소방령, 동부소방서 예방구조과장에는 김승숙 소방령이 각각 배치된다. 제주소방서 현장대응3단장에는 이재진 소방경이, 제주안전체험관 체험지원과장에는 박경찬 소방경이 소방령으로 각각 승진해 자리를 옮긴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 장마 시작... 역대 세번째로 늦어

1~2일 강한 비 예보

제주가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평년보다 늦게 찾아온 탓에 올해 제주의 장마 시작일은 역대 3번째로 늦은 것으로 기록됐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주에 장마가 시작됐다. 북태평양고기압과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2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보통 제주지역에 장마가 가장 먼저 찾아온다. 올해 제주의 장마 시작은 기상관측망을 전국으로 확대한 1973년 이후 역대 3번째로 늦었다.

기상청의 기후통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가장 늦게 시작한 해는 1982년(7월 5일)이었고 2021년(7월 3일)이 그 뒤를 잇는다. 제주의 평년(1991~2020년) 장마 시작일은 6월 19일이며 종료일은 7월 20일이었다. 평년 장마 기간은 32.4일, 강수일수는 17.5일, 평균강수량은 348.7mm다.

장마 시작부터 많은 비가 예보됐다. 지난달 30일 늦은 밤부터 1일 낮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1일 늦은 오후부터 늦은 밤 사이 약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북부와 추자도 30~80mm, 북부와 추자도를 제외한 지역 50~100mm(많은 곳 120mm 이상)이다. 산지에는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는 이후 이달 3~5일에도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다만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위치와 정체전선상의 저기압 발달 여부에 따라 강수구역과 시점, 강수량 등 예보 변동성이 있겠다”고 전했다.

박소정기자

청년 신규 채용 시

병·의원에도 인건비 지원

7월 1일부터 청년을 신규 채용한 병·의원은 인건비 일부를 지원 받는다.

제주자치도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를 보건업종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용근로자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 사업장 중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원 받지 않는 사업장 가운데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거나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다. 지원 규모는 청년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1년간이다.

그동안 보건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최근 구인난으로 인한 업계 요구가 이어지자 올해부터 지침을 개정해 이들 업종도 포함했다.

또한 기존에는 정규직 신규 채용



자연 체험활동 나온 어린이들 지난달 30일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해안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자연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시에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채용 후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이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도정뉴스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업의 채용 여력을 끌어내 제주 청년들이 다양

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규 고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비전의 제주 교육, 변화의 시작!’

고의숙 교육감 취임을 제주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응원합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나아가는 제주교육, 제주 교대 동문들이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소통의 교육감으로서, 제주 교육의 밝은 미래를 힘차게 열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고 의 숙

제주교육대학교 총동창회